

지역 메아리

김제문화예술회관 개관 축하음악회

문화, 예술 행복 도시 김제문화예술회관 개관 9주년을 맞이하여 개관 축하음악회를 오는 20일 잠미여관과 함께하는 김동과 열정의 무대로 펼쳐진다.

18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김제문화예술회관 개관 9주년을 맞아 폭발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핫 트랜드 밴드 '잠미여관'과 함께하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며 즐겁고 흥나는 콘서트로 세상을 놀라게 할 그들의 무대가 봄의 상큼함과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잠미여관은 보컬·기타 강준우와 육중원을 주축으로 2011년 결성되어 현재의 5인조로 구성된 밴드로 서바이벌 탑 밴드2와 각종 영화 드라마 OST 등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중독성 있는 음악은 물론 멤버 각 5인마다 개성만점! 센스만점!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김제문화예술회관은 2009년 4월 개관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과 사람이 어우러져 함께 휴식하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명품 공연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도특장, 김제시에 백미 기탁

(국도특장(대표 김재영)은 18일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후전)에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20kg 91포, 10kg 46포(시가 470만원)를 기탁했다.

김재영 대표는 개업축하 화환과 함께 받은 쌀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본인이 직접 추가로 백미를 구입하여 김제시에 기탁했다.

김제시 주민복지과는 사랑의열매 이웃돕기 대상자를 읍면동장 추천으로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저소득가정 137세대를 선정,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와 읍면동 맞춤형복지 담당 직원이 직접 지원대상자를 방문하여 쌀을 전달했다.

(국도특장은 김제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입주한 업체로 트레일러 제작 및 사고차 수리 전문 업체로 2017년 11월부터 영업을 시작, 공장 부지가 약 2,600여평으로 특장차 전문단지 활성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업체이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물품을 기탁해 주신 (국도특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우리시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운영

그림책 든 책꾸러미 가방 선물·책 놀이 프로그램·부모교육활동 지원

김제시립도서관은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변함없이 '북스타트(Book Start)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영유아들이 책 꾸러미 선물을 받고 책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김제! 시민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영국의 교사이자 사서였던 웬디폴링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1999년 영국 전역으로 확대됐다.

그 후 선진국에서 북스타트 운동이 확산, 우리나라에는 2003년부터 도입됐다.

이 사업은 영유아기 때부터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모 사이에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줄 사회적 육아지원운동이다. 시립도서관은 영유아들에게 단계별 그림책이 든 책꾸러미 가방을 선물하고 책과 친해지게 하는 책 놀이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책 꾸러미 배부 대상자는 1단계(북스타트) 2016년 10월 1일생부터 2018년생까지이고, 2단계(북스타트 플러스) 2015년 5월 1일생부터 2016년 9월 30일생까지, 3단계(북스타트 보물섬) 2012년 1월 1일생부터 2015년 4월 30일생까지로 주민등록상 김제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책 꾸러미 신청방법은 영유아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제시립도서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번 북스타트 여는 날 행사에 책 꾸러미 수령이 가능하며 당일 접수 및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북스타트 책 꾸러미 안에는 그림책(단계별) 2권과 북스타트 프로그램 안내서, 부모를 위한 가이드북 등이 들어있다.

송윤섭 시립도서관장은 "사회적 육아지원 프로그램인 북스타트를 통해 아이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김제, 아이들이 제일 행복한 도시 김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프리포즈축제 홍보 박차

라디오 청취자 투어패스 선물 증정

완주군이 전북투어패스와 완주프리포즈축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라디오에 전 북투어패스를 후원, 사연을 신청한 청취자에게 투어패스카드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FM 90.1 장례라 행복발전소를 비롯해 도내 주요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전 북투어패스 증정과 함께 프리포즈축제를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도내 14개 시군의 관광시설, 숙박, 음식, 체험 등을 카드 한 장으로 무료 이용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부를 관광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관광 상품이다.

완주군은 대표적으로 삼례문화예술촌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완주프리포즈축제는 오는 6월 16일 모악산 일원,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에서 열리며, 커피를 위한 다양한 게임과 이벤트, 사랑의 세레나데, 뮤지컬, 플래시몹, 프리마켓 등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장에 전북투어패스가 이용객의 편의에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봄 맞이 도시공원 일제정비

바닥조명 추가 설치·바닥 재포장 등

완주군이 봄을 맞이해 도시공원 일제정비에 나섰다.

완주군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의 대대적인 시설정비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사울공원 내 다목적구장 우레탄(인조잔디) 재포장 및 바닥조명(올라표지등) 추가 설치, 지사울·생강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보수, 생강

골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우레탄 재포장 등을 이날 중 완료한다는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문객들이 많은 봉동생강골공원, 이서 지사울공원·소리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23개소에 수목정리, 예초·제초 작업,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한다.

공원관리 인력을 집중 투입해 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실, 어린이놀이 시설 등 공원 내 시설물 점검에도 만전을 기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도시공원 23개소에 환경정비 및 수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여성일하기센터, 기업맞춤형 식육마이스터 과정 개강식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미란)는 지난 16일 미취업 여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훈련 프로그램 '기업맞춤형 식육마이스터 과정' 개강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강식은 센터장의 인사말과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기업가 정신 특강으로 진행했다. 이번 식육마이스터 과정은 협약업체인 도담(대표 장수봉)과 지난 1월 MOU를 체결하였

으며 식육위생, 지육부위별 정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4월 16일부터 6월 22일 까지로 교육수로 후 전원 도드랍 업체에 취업하게 되는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궁이디자인학교 운영

완주군, 로컬에너지 전파... 4가지 교육과정 개설

완주군이 아궁이디자인학교를 운영해 로컬에너지를 전파한다.군은 친환경기술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 프로젝트 '아궁이디자인학교'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4가지 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아궁이디자인학교는 내손으로 방 한 칸을 왕겨로 단열 시공하는 '생태단열교육'(4.27~29), 전원생활의 로망인 난로를 만드는 '화덕과 난로'(5.11~20), 온돌 의자를 배우는 '로켓메스히터 워크숍'(6.6~9), 고효율 구들을 놓는 '구들 시공과정'(6.25~29)이 있다.

오는 27일부터 6월까지 완주군 로컬에너지센터에서 교육이 진행

되며, 아궁이디자인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전화(기술사회적협동조합(063-242-9759))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2013년부터 적정기술 보급을 위한 로컬에너지 사업을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전국적인 로컬에너지 선도지역 이미지를 만들었다."며 "실생활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난로, 구들, 간단한 생활기술 제작품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창업과 구직으로 연결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찬은 예비후보, 완주군의원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은(56) 예비후보가 17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완주군의원(봉동읍·용진읍)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34년 이상 완주군에서 근무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출마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군의원은 누구 위에 군림하고 지시하는 벼슬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봉동, 용진읍의 위상에 걸맞은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참된 목소리 와 어려움을 청취하여, 해결 해야 하는 심부름꾼."이라

고 말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예산행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완주호 라는 큰 배가 순항할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중화 행정가인 자신이 적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완주군의 말단행정(봉동읍, 용진읍)에서부터 도시계획, 도로개설, 재난안전, 상·하수도 관리 등의 업무로 34년 이상을 근무한 경험을 살려 군의원에 당선이 되면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 역할로 소통에 충실하고 낮은 자세에서 주민과 함께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